나도 새벽을 깨우면 일어나는 일

(시편 108:1~13)

1.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2.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3.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4.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5.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나도 새벽을 깨우면 일어나는 일>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나도 새벽을 깨우면 일어나는 일'
오늘 말씀 2절의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다윗의 노래는 무척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두레교회 김진홍 목사님의 일대기를 담은 영화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김진홍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새벽을 깨울 수 있습니다. 왜 새벽을 깨워야하고 새벽을 깨울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은 특이하게도 앞서 보았던 다윗의 시 57편, 60편과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57편에서는 사울 왕의 추격을 받던 다윗이 아둘람 굴이나 엔게디 굴을 전전하며 피신생활을 하던 시기에 지어진 시였습니다. 60편은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으로 등극한 초기에 요단강 동편의 에돔과의 전쟁에서 일시적인 패배를 겪고 나서 지은 시였습니다. 오늘 시는 이 두 시의 일부분을 발췌하여 합친 시입니다.
이러한 편집 작업은 바벨론 포로귀환 이후에 일어난 것으로 짐작됩니다. 다윗으로부터 500년의 시대가 흘렀는데 어떤 영감을 얻기 위해서 후손들은 이러한 편집 작업을 했던 것일까요? 그 요점이 바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부분인데 다윗의 일화를 통해서 새벽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물리친 때로 돌아가 봅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대표로 골리앗이 나와 위용을 떨치자 사울 왕부터 이스라엘군 전체의 마음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목동 다윗이 등장하여

골리앗과 싸우게 되는 상황이 본문과 연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두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골리앗이 위용을 떨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도 사실입니다. 다윗이 그랬듯이 적어도 선민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객관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대는 이 두 개의 사실 중에서 골리앗이라는 사실을 현실로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나의 주변에는 많은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들 중에서 마음을 보내는 것만이 현실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사실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어느 하나에 마음을 주면 그 사실은 태양처럼 떠오릅니다. 그 태양처럼 떠오른 사실의 빛 아래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마치 해가 떠있을 때에는 별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남겨진 사실들은 의식 바깥에 머물게 됩니다.
목동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마음을 보내어 선택함으로서 현실로 삼았습니다. 마음에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태양처럼 떠오르자 골리앗과 블레셋의 군대는 별이 되어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용감하게 나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객관적인 사실들 중에 마음을 보내고 채택한 사실을 주관적 현실로 삼고 살아갑니다. 현실이라는 태양이 비추는 빛 아래에서 살아갈 때에 나머지 사실들은 묻혀버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동창도 있고 대학교 동창도 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직업과 가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지만 나의 현실은 아닙니다. 내 직장이 현실이고 내 가정이 현실입니다. 또 다른 예로 세계 각지에서 여러 가지 사건사고들이 사실로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이 나의 현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녀가 뉴욕에서 살고 있다면 나의 마음은 미국에 있는 자녀들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뉴욕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들은 나의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몸은 한국에 있지만 마음은 자녀가 있는 뉴욕에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수없이 많은 사실들이 마음에 쇄도하면서 현실로 삼아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사실을 현실로 채택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에서 1등을 하는 사실만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 조명을 받으며 현실이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현실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실들 중에서 현실을 택하는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여기서 믿음이 작용합니다. 나의 행복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사실들을 현실로 채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부정적인 믿음이 있고 긍정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믿음이란 객관적 사실이 없어져야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마음입니다. 이는 곧 그것이 나를 불행하게 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복수심이 그렇습니다. 원수라는 사실이 없어져야만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긍정적

인 믿음이란 그것이 있어야만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마음입니다. 저 사람과 결혼을 해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곧 긍정적인 믿음으로 애정을 현실로 채택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통해서 본 시가 말하고자 하는 새벽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구절을 주석서들은 역사적인 사실로만 풀이하여 사울 왕이 목숨을 노리는 암울한 상황이 언젠가는 지나가리라 기대하는 다윗의 마음가짐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표현은 능동적입니다. 반면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는 상황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한 적이 없었습니다.
동굴에서 용변을 보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다는 객관적 사실과 더불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저울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운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다윗이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말로서 적극적인 마음가짐을 표현한 것은 결코 사울의 추격이 끝나기를 바라는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참 모순적입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이나 엔게디 굴을 전전하며 쥐 죽은 듯이 숨어 다녀야 할 판에 비파나 수금을 동원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벽을 깨우겠다고 합니다.
시편 57편 4절을 보면 사울 왕이 자신을 쫓는 상황을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라고 묘사하였습니다.
이만큼 모골이 송연해지는 순간순간을 살며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5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만군의 주 여호와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골리앗 때와 마찬가지로 57편의 다윗에게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 왕이 무시무시한 살의를 가지고 자신을 추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영광의 하나님이 계심도 사실입니다.
6절에서는 또 다시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억울함을 느낄 정도로 사울의 추격이 다윗에게는 현실로 느껴질 정도로 급박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두 가지 사실이 현실로 교차되면서 다윗을 고민케 하고 있었습니다. 고민하던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을 현실로 선택하며 7~8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힐 만큼 소름이 바짝바짝 돋는 위기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내고 현실로 삼았습니다. 두 사실 속에서 마음이 갈등했으나 하나님을 현실로 확정한 것입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노래를 통해서 다윗은 밤을 쫓아내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을 추격하는 사울과 백성들에게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객관적 사실이 의식 바깥으로 쫓겨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밤이 임한 셈입니다. 다윗은 이렇듯 사울 왕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의 선민들에게서 하나님이 현실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만이라도 이 밤을 쫓아내고자 하는 심정으로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노래를 한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공격할 수도 있었지만, 사울 왕에 대해서는 아무런 행동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현실이 되도록 전폭적으로 인정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이 현실이 되지 못하시고 어둠 속에 묻히셨으니, 자신만이라도 하나님을 태양처럼 떠오르게 하여 암흑에 대해 새벽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나온 후에 에돔과의 전쟁에서 실패를 기록한 60편의 시를 이어 붙입니다. 다윗이 겪은 에돔에서의 실패의 이유를 교훈으로 주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은 요단강 동편 에돔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길에 또 다른 침공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끄는 이스라엘의 주력부대가 북동부 지역에 몰린 틈을 타서 에돔의 병력이 남쪽을 침공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내려가서 에돔과 싸우다 패배하게 됩니다. 나중에 요압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도착하고서야 승리하게 되는데, 이들이 도착하기 전에 패배한 상태에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60편입니다.
다윗은 승리했던 에돔에 대해 왜 패배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자신이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긴 에돔이 다른 방면으로 침공해왔다는 사실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려났던 것입니다. 에돔을 현실로 삼자 하나님께서 전쟁에 패배하게 하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본문 7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주변 민족들을 물리치신다는 내용을 말씀하신 것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기뻐하시는 이유는, 모든 사실보다 우선하여 하나님을 현실로 채택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첫 번째 현실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주변

나라와 민족들을 하나님의 현실로 삼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첫 번째로 삼아 현실로 받아들이면, 나와 연관된 많은 사실들은 대낮의 별과 같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나의 의식 바깥에 머물게 된 사실들은 하나님의 현실이 되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며 손에 만져지는 사실들을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전부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선민들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객관적 사실이 내게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현실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그 결과 세상의 사실들을 현실로 받아들인 나를 번제단에서 죽이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러한 과정이 성전에서 일어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남겨진 사실들은 하나님께서 현실로 삼아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번제단 대신 십자가가 주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4~15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하셨습니다.
모세의 구리 뱀 장대는 곧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죽음은 나의 죽음인데 이것이 사실입니다. 집에 돈 문제가 있다면 사실입니다. 가족 중에 암에 걸린 사람이 있다면 사실입니다. 자녀가 대학입시에 실패했다면 사실입니다. 취직과 결혼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 많은 사실들 중에서 어떤 사실을 첫 번째 현실로 삼아야 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곧 나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첫 번째 현실로 삼아야 합니다. 이 땅의 사실들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아갈 때에 나의 마음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을 현실로 삼게 됩니다.
하늘과 천국이 있는 것도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객관적 사실인 하늘과 천국이 지금 나의 현실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사실들과 씨름하는 동안에는 객관적 사실로 존재하는 천국은 나의 현실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하늘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나의 현실로 삼을 수 있습니까? 구약에서는 성전에 번제단이 있어서 세상의 사실들을 현실로 채택했던 나를 죽이는 과정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세상의 사실들을 현실로 채택한 나를 죽여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현실로 붙잡을

때에, 나와 연관된 세상의 모든 사실들은 하나님의 현실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다윗이 말한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노래의 의미입니다.

직장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암흑인 곳입니다.
아무도 하나님과 천국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로지 승진과 월급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나는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서 내 마음이 하늘로 초청받아 올라간다는 사실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는 직장에서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사실과 천국 사실과 십자가 사실에 대해 암흑인 세상에서 십자가를 붙듦으로서 천국과 하나님을 현실로 끌어들이는 나는 새벽을 깨우는 사람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구성원 누구도 하나님을 현실로 삼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 하나님을 현실로 삼는다면 밤중인 집안에 새벽을 깨우게 될 것입니다.
TV를 켜면 정치인들 학계 재계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암흑을 살고 있습니다. 천국 사실과 하나님 사실과 십자가 사실이 객관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현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내가 십자가를 현실로 삼고 연쇄적으로 천국을 현실로 삼을 때에 대한민국의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새벽을 깨울 때에 태양빛에 가려진 별과 같은 세상의 사실들은 하나님께서 현실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경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다윗에게 주어졌던 위기처럼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주어지든지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만이 나의 현실임을 주장하고 고백하고 인정함으로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천국을 나의 현실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